



정교회주보

제2468호

2024.04.14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아토스 성산의 수도원 탐방 15> 성산 동쪽 기슭 해발 50m 바닷가 바위 위에 스타브로니키타 수도원(사진)이 있다. 규모 면에서 가장 작은 수도원에 속한다. 설립 시기와 이름에 관한 가장 유력한 추정은 10세기 후반에 스타브로스 와 니키타스, 두 수도자가 설립했다는 설이다. 171권의 사본, 58권의 양피지, 수천 권의 도서와 다양한 성물을 소장하고 있다. 8개의 성당이 있다.

사순절 제4주일
(성 요한 클리막스 수도자)
성 토마이다 순교자
(제4조 • 조과 복음 1)

| | |
|---------------------------|-----|
|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
|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
| • 성 요한 클리막스 수도자 찬양송 .. | |
| (비교정 축일 성가집) 46 | |
| • 성당 찬양송 | |
| • 사순절 시기송 | 223 |
| • 사도경 : 히브리 6,13~20 | 233 |
| • 복음경 : 마르코 9,17~31 | 139 |
| • 성모송 | 62 |

필요한 한 가지

주 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마태오 4,4)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성한 말씀을 가끔 맛보는 것과 '그것으로 사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을 나날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느님의 말씀이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더욱 심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필요와는 아무 상관 없어 보일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요 능력이 됩니다.

'예수' 중에서 [정교회출판사]

기도의 능력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므로(요한 4,24) 하느님과 친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마음과 마음의 영적 교류입니다. 하느님과의 영적 친교를 하여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하느님과의 친교가 단절되고 믿음의 상태가 불확실하게 되어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상태 중의 하나는 성당도 가기 싫어하며, 영적 양식이 되는 거룩한 것을 거부하고 반항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함을 버리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 즐기며 허랑방탕하게 살기 시작합니다.(본인들은 부인하더라도 교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크고 작은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현상을 보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아이는, 영혼은 물론이고 육신 또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아이의 아버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발작하면 불 속에 뛰어들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하여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악령이기에 이렇듯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 악령은 아이에게 들어가 이렇듯 괴로움을 주고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

었다고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그것은 부모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부모의 불신으로 인하여 아이를 영적, 육적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요한 9,22-23). 부모의 정신적인 우유부단은 아이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특히나 정신적인 양식이 필요한 예민한 아이들은 치명적인 상태로 빠집니다. 악령은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힙니다. 본래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악령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잘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왜 죄와 투쟁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적인 양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멀리하게 되면 이같이 큰 유혹에 빠져 고통을 겪게 됩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주님을 만나서 악령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다시 갖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저희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하고 묻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듯이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물론 그런 대단한 기도의 능력은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느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면 끊임없는 기도와 금식으로 믿음이 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순절 금식과 기도로서 다가오는 주님의 부활을 더욱더 피부로 느끼고 영적인 성숙을 가져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신다고 누가 말하는가?(1)

성 니콜라이 벨리미로비치 (1880-1956)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이제 막 세례받은 어느 교사에게 보낸 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딸에게,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는 둘 다 정교 신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금식과 기도, 자선, 친교의 계명을 충실히 따르기 시작한 이후로, 감추어졌던 하느님의 진리가 당신에게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진리를 아는 길을 발견하도록 돕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저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곧, 어떤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로 어두워져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은 정념(情念, 파토스)으로 인해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바라는 것이 쉽게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동료 교사 한 분이 “하느님이 존재하신다고 누가 말하는가? 하느님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서 당신을 놀라게 하였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할지 그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그 일에 대해 하느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기 바랍니다.

“친구여,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정말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당신 발밑에 있는 푸른

식물이 증거가 아닌가. 그것은 창조주가 말씀하신 그날, 그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돌아나거라! 땅 위에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돌아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창세기 1,11)’

해와 달과 별들이 증거이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머리 위에서 진심으로 어떤 증거를 찾는다면 신비스러운 달과 별들의 무리뿐 아니라 맹렬하게 타오르는 태양이 증인이다.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서 이 무수한 별들과 은하수의 무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찾아보도록 하라. 내가 확신하건대, 주님의 말씀이 어둠과 혼돈 위로 올려퍼진 그날과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 다다르면 당신은 그 해답을 찾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 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창세기 1,14-16)’”

(다음주에 계속됩니다.)

사순절 예배 안내

- * 화, 목 오후 5시
석후대와
- * 수요일(4/17)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오후 : 대 까논 예배
- * 금요일(4/19) 오후 6시
성모 기립 찬양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수요일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

세월호참사 10주기

소 식

- 부활절 달걀과 꽃 봉헌 신청
부활절 달걀과 에피타피오스 꽃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오늘 성찬예배 후 모든 성당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그분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 서울 성당 꽃 심기
오늘 점심식사 이후 부활절 맞이 꽃 심기를 합니다. 모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교구 건물 지붕 방수 공사
주교관과 주교청 홀 지붕이 방수에 취약해 매년 장마철과 겨울철에 심각한 누수 문제가 발생했기에, 이에 방수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대교구로 현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500-073554)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성인의 가르침

어느 형제가 사부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형제여, 주님께서 그대를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된다면 제일 먼저 무얼 신경 쓰겠소?”

“저의 죄에 대해 신경 쓸 것입니다.”라고 형제가 말했다.
성인이 그에게 조언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대의 기도방에 들어앉아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그 죄에 대해 슬피하시오.”